행복한 책 읽기

황석영 '낯익은 세상' 〈문학동네 刊〉

그곳에도 사람이 산다

쓰레기 얘기를 꺼내려니 미안해진다. 새로운 제품 광고와 소비 욕구가 판을 치는 환락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라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바로 우리들 얘기다. 우리 주변의 낯익은 세상이다.

쓸모 때문에 생겨난 게 쓰레기다. 당초에는 긴요한 물건이었을 테고 사랑도 받았을 것이다. 버려지기 전까지 최적의 효용을 자랑했겠지만 쓸모를 잃어버린 순간, 쓰레기가 되고 만다.

쓰레기 없는 세상이 있겠는가. 문명은 풍요를 가져다주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폐기물 더미에 인간을 몰아넣고 운명처럼 살아가도록 했다.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조차 없던 과거에는 쓰레기가 나오면 무조건 태워 없애려 했다. 연기 피어오르는 소각장에 쪼그리고 앉아 쓰레기를 태우는 동안 눈물을 찔끔거리며 담배를 피웠다. 골목길 어귀에서 청소차 종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 쓰레기 포대를 들고 골목 끝으로 뛰쳐나갔다.

조금 진화했을까. 아파트로 이사한 후에는 주방 쪽 벽면에 뚫린 쓰레기 투입구를 열어 오물을 투척했다. 5층짜리 아파트가 대세이던 시대에 1층은 쓰레기 냄새로 괴로웠다.

황석영 장편소설 '낯익은 세상'은 꽃섬이라 불리는 쓰레기 매립장 얘기다. 지금은 하늘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한 변신에 성공한 난지도를 연상해도 되겠다. 꽃섬은 쓰레기 매립장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다.

그곳에서도 사람이 산다. 쓰레기 더미를 뒤져 주워 먹을 것을 찾아 달려드는 사람들이다. 반입되는 쓰레기차에 따라 구획이 나뉘어져 있어 권리금을 내야하고 등록증도 갖춰야 한다. 치열한 경쟁은 물론이고 권력의 질서마저 존재한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

쓰레기를 뒤져본 적이 있는 자는 안다. 악취 나는 오물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파국을 예감하는 불안정한 삶이 칙칙하게 이어지지만 미적지근한 온기의 사람을 나누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주인공 딱부리와 작업반장 아수라의 아들 땜통이 꿈꾸는 도깨비는 머리에 뿔 달린 무서운 대상이 아니다.

줄거리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쓰레기 매립장이 되기 전 아름다웠던 꽃섬을 되찾고 소박했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작가의 의도가 읽히면 된다. 덜 소비하는 만큼 쓰레기도 줄어들듯이 조금 없이 살아도 홀가분했던 옛날 모습대로 살아가자는데, 왠지 공허하다.

자본주의는 필경 몰락하고 말 것이다, 예언만 할뿐 당장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경쟁 체제가 최첨단의 소비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다.

하늘공원은 난지도의 기억을 지우고 싶지만 쓰레기의 시대는 오히려 현재진행형이다.

지옥 같은 꽃섬을 낙원으로 돌려놓으려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한눈을 팔 때 재앙은 온다.

정 강 철
198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어린이날 광주·전남은 어린이 세상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호랑이 형님'

호랑이 형님에게 효심 배우고 브레멘 음악대 따라 꿈 찾아 떠나요

박물관·미술체험·가족 뮤지컬 등 풍성한 문화행사

함평나비축제·완도장보고축제 등 지역축제도 함께

아이들의 눈동자만큼이나 산과 들의 신록이 눈부신 5월.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전남 지역 곳곳에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들이 다채롭게 열린다. 온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어 기쁨도 두 배다.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은 제91회 어린이날인 5일 오후 5시 광양백운아트홀에서 정기공연 국악뮤지컬 '호랑이 형님'을 무료공연한다. 한국 전래동화 '호랑이 형님'을 소재로 한 이 뮤지컬은 주인공 '효행이'가 백두산에서 만난 호랑이와 함께 병석에 누운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본다는 내용이다.

이번 공연에는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원과 전남도립국악단원 등 70여 명이 출연하며, 예술총감독은 이상동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지휘자, 대본 임영욱 작가, 연출은 김지영씨가 맡았다. 문의 061-280-5824.

전남도립국악단은 앞서 3일 오후 7시 진악당 무대에서 '아기돼지 꼼꼼이'를 공연한다. 광대놀음 '떼이루'가 기획한 이번 공연은 동화를 소재로 전통소리, 탈춤, 사자춤 등 전통연희를 이야기 속에 삽입해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간다. 문의 061-540-4031.

그림형제의 동화 브레멘 음악대를 각색한 어린이뮤지컬 '유열의 브레멘 음악대'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찾는다. 1~5일 오후 2시와 5시에 박람회장 잔디마당에서 45분 동안 공연된다. 꿈을 찾아 떠나는 네 마리 동물들의 좌충우돌 모험이야기를 담고 있다. 문의 061-749-2753.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에서는 5일 어린이 벼룩시장 '병아리떼 쫑쫑쫑' 행사가 진행된다. 어린이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직접 판매하는 행사로, 판매 수익금의 50%를 기부하면 기부증서 등 기념품이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오는 3일까지 062-655-8975로 하면 된다.

박물관에서도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5~11일 '2013 봄 문화 축제'를 연다. 특히 5일에는 '전통민속놀이체험', 유물 문양을 활용한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함께 오후 2시부터 가족영화 '볼트'를 상영한다. 문의 062-570-7000.

광주시립민속박물관도 5일 기획전시실과 야외광장에서 종이접기, 북아트, 골판지공예, 클레이아트 등 공예체험 행사와 함께 그림대회, 마술쇼, 피에로 공연, 장기자랑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자녀와 함께 박물관을 찾는 가족은 기획전시 '길에서 남도를 만나다'와 상설전시를 무료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13-5337.

광주신세계갤러리를 찾으면 작가들의 작품을 만지면서 놀 수 있다. '미술관에 놀러 왔어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들은 작품으로 놀이터를 만들었다. 권진희씨는 커다란 비즈(beads)를 엮어 화려한 커튼을 연출했고, 노주련씨는 대형 투명 벌룬(balloon)을 이용했다. 4일에는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어린이 아트클래스', 5일에는 '온 가족 미술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문의 062-360-1271.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4~5일(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가족뮤지컬 '아라비안 나이트'가 무대에 오른다. 천일야화 속 아라비안나이트를 소재로 극단 코스모스가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판타지세계를 만들어 낸다. 다음날인 6일 오후 7시에는 극단 코스모스의 '하얀 마음 백구' 공연이 이어진다. 어린 소녀와 투견장으로 팔려간 백구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밖에도 함평나비대축제(~8일), 담양대나무축제(3~8일), 여수거북선축제(3~6일), 완도장보고축제(3~5일) 등 다양한 축제가 함께 열린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프로젝트 그룹 옆[엽] 작
'ponpon gilr's one fine day'

지역문화호남재단 '역사문화시민대학' 내일 첫강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조선대 인문학연구소가 함께 진행하는 '제3기 역사문화시민대학-음식으로 바라본 호남의 역사와 문화' 첫 강좌가 2일 오후 2시 광주향교 문회재에서 열린다.

이날 강사로 나서는 강현구 광주시 문화재위원은 '근·현대 광주의 음식문화'를 주제로 문헌과 속담 속에 담긴 음식, 판소리 속의 상차림, 산·들·바다가 만든 각 고장의 진미와 향토 음식 등에 대한 해설을 곁들여 강좌를 진행한다.

오는 9일 열리는 두 번째 강좌는 한예원 조선대 교수가 '통과의례 음식으로 본 문화사'를 주제로 진행하고, '신선의 음식과 슬로푸드'(이용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16일), '남도음식문화 읽기'(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23일), '진도 토요민속여행 및 아리랑마을 홍주촌 문화탐방'(25일) 순으로 강좌가 진행된다. 문의 062-234-2727.

/김경인기자 kki@